발간자료

• **의료기기 (Overweight):** 한일령 반사수혜로 중국인의 한국인 방한 증가 예상. 에이피알 아마존 베스트셀러 Top3 제품 등극,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 고무적. 의료관광은 11월 최대 수치 예상. 현재 의료기기와 화장품 밸류 낮아져 있는 상태로 앞의 두 이슈로 매수 접근 가능.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글로벌텍스프리_Not Rated:** 텍스리펀드 국내 1위 업체. 1위는 올리브영, 2위는 미용성형이 동사 매출에서 차지.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은 11/24 발표 예정. 외국인 객단가 여전히 올라가는 중. 한일령에 대한 직접 수혜 가능 종목.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넥스트바이오메디컬_BUY/12만원:** 관절염 치료 의료기기 판매기업. 현재 코오롱티슈진 5조 밸류 감안하면 업사이드 100% 가능. 넥스파우더. 용종 치료 시 출혈 방지. 유럽 표준 치료지 등재예정으로 등재 시 동사 캐시카우 역할 가능. 넥스피어F. 비정상 혈관 막아 염증 세포로 가는 혈류 차단. 2027E FDA 허가 목표.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조선 Weekly:** 신조선가지수 벌크와 탱커 상승, 컨테이너선과 가스선 하락. HD현대삼호는 유럽 선주로부터 VLCC 4척, 130.2백만달러로 선별 수주. LNG선 스팟 운임 급등으로 LNG 발주를 고민하는 선주들의 심리 자극. HD현대삼호가 BW LNG로부터 LNG선 2척 수주, Equinor는 LNG선 2+2척 건조사로 한화오션 선정. 다만, 나이지리아 BGT는 중국 후동중화를 선정하며 중국의 저가수주가 LNG선으로도 확대되는 모습.
(조선/방산/기계 최광식)

• **자동차 Weekly:** 16일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후속 민간 합동회의에서 현대차는 125조원 투자 및 5년간 로봇, AI산업 육성에 적극 개입 언급.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공장에서 2027년 LFP 배터리 양산 확정. 초기생산은 1GWh 규모. 현재 비중국권 기준 LFP 배터리 양산능력을 유일하게 갖춘 상태. 정부주도 1조원 규모 ESS 배터리 2차 발주임박. 가격보다 화재 안정성 등이 강조. 삼성은 NCA, LG는 LFP를 강조.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